

## 시선

### 사설

## 공기(公器)된 사립대학에 일반재정지원 환영한다

학문 공동체인 대학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높다. 2009년 이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맞춰 70%를 웃돌던 평균이 2015년 50%대까지 낮아지긴 했지만 등록금 액수 자체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머무른다. 우리학교 2016년 등록금 의존율은 55.1%였다.

지난 세월, 사회가 사립대학에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요구한 것 역시 대학이 가지는 공적 성격보다 그들이 요구하는 비용이 너무나 커기 때문일 것이다. ‘반값’은 이루지 못했을지언정 대학들은 반강제로 등록금을 동결해야 했다. 사립대학들은 주머니 사정 때문에 정부의 요구를 더 열렬히 쫓아다니게 됐다. 정부는 지원사업을 벌이로 대학을 흔들었다.

ACE+, PRIME, CORE, CK, LINK+, BK21+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의 이름만으로도 이미 열거가 힘들 지경이다. 여기에 고교교육정상화 사업, 평생교육체계 지원 사업 등 자잘한 사업은 수없이 많다. 각 대학은 기획실의 주 업무를 ‘재정지원사업 준비’로 두고 돈을 벌어오기 위해 각종 사업에 맞춰 매번 체질을 변화해야만 했다.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했고 PRIME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절정에 달해 정원 조정과 캠퍼스 이원화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대학은 사회의 공기(公器)다. 사립대학 역시 사회가 요구하는 이 책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난달 제2차 미래대학포럼에 모인 주요 사립대학 총장들은 사립대 역시 사회를 위해 인재를 기르고 연구하는 공적 기관의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역설했다.

지원은 차등적이었다. 사립대학에 가해진 것대는 엄격한 가운데 이전 정부의 줄 세우기식 재정 지원 사업은 이중고였다. 사업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체급의 대학은 앞서나갔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사업 선정을 위해 추가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감수해야 했다.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교육부는 국립대에 이어 사립대 입학금 역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입학금 수익의 20%를 국가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ACE+, PRIME, CORE 사업 등 기존 사업의 성격을 고쳐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을 만들고 상위 60% 대학에 대해 보편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최대한 많은 대학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취지는 환영할만하다. 그간 적립금을 쌓아만 두고 등록금으로 장사를 한다는 오명 아닌 오명을 써 왔던 사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보편적 지원이 확대되면 사업을 따내기 위한 소모적 지원이 학생에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은 사업계획서가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창학 정신이 지향하는 교육 목표를 실현하는데 오롯이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장밋빛 예상은 지원의 ‘판’이 충분히 틀 때 현실이 된다. 앞서 말했듯 대학이 학문 공동체로 기능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이 현실적인 크기로 변화한다면 대학은 공공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는 더 엄중히 그 책무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변화가 대학으로 하여금 그 엄중한 물음에 답변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

## ‘경력 단절 박사’ 박은정 박사 동서의학대학원 교수로 부임

미디어·여론 동향 2017.11.20. - 12.3.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양 캠퍼스 제50대 총학생회 선거 결과, 서울캠퍼스(서울캠) ‘쿠토피아’ 선본은 낙선하고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열림’ 선본 김효형-심자용 후보가 당선됐다.(국제캠 총학 김효영-심자용 당선, 서울캠은 비대위 체제/대학주보 온라인, 2017.12.2) 찬성률 50.8%의 서울캠 쿠토피아 선본 박원규(사학 2014) 정후보, 송태현(경영학 2014) 부후보는 당선 조건을 충족지 못해 낙선했다. 투표율은 50.36%였다. 국제캠은 기호 1번 열림 선본 김효형(일본어학 2011) 정후보, 심자용(화학공학 2015) 부후보가 66.96% 득표로 당선됐다. 전체 투표율은 60.58%였다.

### 만평



### 이 주의 주제 - 국제캠퍼스 마을

## “안타까울 뿐이다”

이근한 기자

drlmsgks21@khu.ac.kr



사람들은 ‘안타깝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한다. ‘뜻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보기에 가슴 아프고 답답할 때 쓰인다’는 무거운 사전적 의미가 쉽게 입 밖에 나온다. 실상은 텅 비었다. 제삼자가 공감 없이 말로만 표현한 안타깝다는 감정은 짙게 가벼울 뿐이다.

국제캠퍼스 우정원 뒷길에 위치한 ‘마을’의 상황은 좋지 않다. 임대료도 못 내는 가게가 태반이라는 ‘쌀쌀맞은집’ 주인아저씨의 말을 텅 빙 거리의 모습이 증명한다. 십 여 년 전만 해도 매일 저녁이면 닭똥집 뒤집과 맥주를 기울이던 학생으로 넘실대던 거리다. 국제캠퍼스와 시작을 같아 한 작은 골목길에 지금은 12월의 찬바람만 휘날린다. 사람들은 이 쓸쓸한 거리를 두고 하나같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마을에 대한 학생과의 인터뷰에서 그 소리가 반복해서 들렸다.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죠.” 정문 건너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학생의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경쟁에 밀려 쇠락하고 있을 뿐 아닌가요?”라고 덧붙였다. 그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 편하게 버스를 타고 내린 정문 건너편에는 익숙하고 깔끔한 프랜차이즈가 즐비하다. 낡고 지저분한 마을보다 새 프랜차이

즈를 선택한 이들을 어찌면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반면 마을 상인들은 당사자다. 당사자가 말하는 안타까움은 좀 더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안타깝다는 말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마을 상권에 나이 든 점주가 많아 변화를 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장 자신의 앞가림도 하기 어려우니 변화를 위해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어렵고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 소비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뿐이다. 소비자에게 추억과 전통을 찾아 마을에 가라고 아무도 강요할 수 없다. 강요한다 한들, 이는 일회적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유일한 방법은 당사자인 상인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뿐이다.

도시재생 산업에 대학의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학이 가진 젊은 인력과 학문적 배경이 자본을 넘어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젊은 트렌드를 반영하기 힘들다”고 말했던 ‘DosMas’ 점주의 한숨에 우리 학생들이 답을 제시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도움은 마중물이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을이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는 마을 상인이다. 대학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기 이전에 당사자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지을 조직을 갖추고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안타까워만 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제캠 외국어대학 한누리소극장에서 최일구 앵커의 특강이 열렸다. (“자존감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라” 최일구 앵커의 메시지/대학주보 온라인, 2017.11.29) 최일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역경을 이기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변화를 위해선 자존감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행동력을 발휘해야 함을 주장했다. 자신이 기자에서 앵커로 나아가며 뉴스데스크를 브랜드화했던 것은 자신의 가치를 믿었던 자존감이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주말 치러진 수시전형 논술시험 후기가 폐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 ‘논술시험을 치르고 나오는데 교육봉사동아리 누나 형들이 과자를 나눠주며 응원해줘서 감사했다’는 글(#경희숲\_27002, 2017.11.26)과 ‘전문에서 산 포춘쿠키의 글귀를 보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었다’는 글(#경희숲\_27003, 2017.11.26)이 연번으로 게재됐다. 245개의 ‘좋아요’가 달린 이 글에 학생들은 ‘모두 좋은 결과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 ‘과제랑 시험에 치여 힘들지만 누군가는 이 상황을 꿈꾸고 있으니 힘내자’ 등의 의견을 남겼다.

아시아 15개 대학이 ‘아시아교양대학연합회’를 창립하고 첫 학술대회를 열었다. (북경대의 자신감, 교양교육으로 세계지도자 양성/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11.24) 중국 맹난대학이 주도한 ‘아시아교양대학연합회’에는 북경대, 도쿄대 등 아시아 유수의 대학이 포함돼있다. 한국에선 우리학교와 서울대, 연세대가 창립멤버로 초청받았다.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선 아시아 대학들이 교양 교육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어나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올해 연구성과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선정되면서 관심을 끈 박은정 교수가 경희대에 부임한다. (‘세계 1% 연구자’ 박은정 박사, 경희대에 새 등지/연합뉴스 외, 2017.11.27) 경희대는 박은정 박사를 동서의학대학원 정교수로 영입했다. 결혼, 임신, 가족 병간호 등으로 41세에 박사학위를 받아 ‘늦깎이 여성 과학자’, ‘경력 단절 박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진 박 교수는 나노 독성학 분야에서 독보적 성과를 갖고 있다. 당초 KAIST 등에서 박 교수를 섭외하기 위해 접촉했으나 박 교수는 역시 세계 1% 연구자에 선정된 경희대 정서영 부총장의 제안을 받고 경희대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잇따른 대학가 단톡방 성희롱

## 성 인지 감수성 제고할 때

### 세시봉

설지연 (국제 뉴스팀장)



최근 한 유명 래퍼가 단체 채팅방에서 외국 래퍼를 성희롱한 것이 알려져 대중의 뜬매를 맞았다. 해당 발언을 한 래퍼뿐 아니라 당시 채팅방에서 웃은 이들 까지 성희롱 발언에 동조한 것이라며 비판을 받았다. 그 후 래퍼들은 사과했지만 상황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른바 ‘단톡방 성희롱’이다.

모두가 알 듯, 대학가도 둘불처럼 번지는 ‘단톡방 성희롱’을 비껴가지 못했다. 최근엔 흥의대와 부경대. 그 외에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우리학교도 물론 마찬가지임이 지난달 드러났다. 가해 학생들은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징계 강화는 단톡방 성희롱을 해결할 완전한 자구책이 될 수 없다.

사건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적발되는 상황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 단톡방 성희롱을 예방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 사건 예방을 위해 구성원의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반적인 인권의식 개선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성 인식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 교수, 직원들보다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청소년기를 지낸 학생들조차, 상당수는 자신이 체계화된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기자 본인도 고등학교 재학시절, 그리고 신입생 때 들었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떠올려 보면 별씨 기억이 희미하다. 성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같은 방법론적인 것들뿐이었다.

### 가해 학생 중징계 넘어

## 구성원 ‘성 인지 감수성’ 개선할 방안 찾아야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당연하게도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항상 나온다. 지난해 우리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취재할 당시 만났던 성평등상담실 상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도 소식이 없다. “부총장연석 회의에 관련 안건을 올렸으나 교무, 학사와 같은 사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물론 강의 하나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합의와 학사제도 변경 등이 필요하다.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징계를 강화하는 것 외에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의 대안을 학교는 만들 수 있는가?

대학은 교육기관이다. 대학사회 내에서의 성희롱을 예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성 관련 사건들을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은 건전한 대학사회를 꾸리는 방법이며, 동시에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 알림

#### 대학주보에

##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욱 | 편집장 이수형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만월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도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동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